

# '몸값 100억원' 베니테스까지 등장...벤투 후임 찾기 안갯속



라파엘 베니테스 바히드 할릴호지치

## 베니테스 감독 "한국 제안 있지만 유럽 좋아" 축구협회, 2월 말까지 새 사령탑 선임 목표 외신서 여러 후보군 거론됐지만 현실성 낮아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찾기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과 결별하고 새 사령탑 물색에 나섰다.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가대표전략기획위원장에 독일 출신의 마이클 빌러를 앉힌 뒤 대표팀 선임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화상으로 첫 회의를 연

위원회는 이후 비공개로 새 감독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외신들의 보도를 볼 때 외국인 사령탑으로 무게가 기울어는 분위기다. 위원회가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선 이후 실제로 여러 후보가 거론돼 왔다. 가장 먼저 호세 보르달라스(스페인) 전 헤타페(스페인)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접촉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이어 브라질 명장 치치 감독을 비롯해 독일 분데스리가 합부르크 시절 손흥민의 스승인

토르스텐 핑크(독일) 전 감독, 마르셀로 비엘사(아르헨티나)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독일 대표팀 감독, 바히드 할릴호지치(보스니아) 전 일본 감독 등이 거론됐다. 또 최근엔 스페인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수석코치를 지낸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감독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대부분 월리 위원장이 내세운 한국 사령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국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현실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보르달라스, 모레노 등은 유럽을 벗어난 적이 없고, 치치와 비엘사는 몸값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 일부는 벤투가 한국에 남긴 이른바 주도하는 축구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라파엘 베니테스 전 리버풀 감독이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 주목을 받았다. 스페인 출신의 베니테스 전 감독은 리버풀에서 2005-200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명장이다. 이후 인터밀란(이탈리아), 첼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등 유럽 빅클럽을 지휘하기도 했다. 2019년 7월부터는 중국 프로축구 다롄 이팡 지휘봉을 잡고 아시아 축구를 경험한 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으로 돌아간 그는 지난해 에버턴(잉글랜드)에서 결장한 후 야인으로 지낸다.

하지만 베니테스는 유럽을 벗어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 한국, 멕시코에서 오퍼가 있었다"면서도 "프리미어리그(EPL)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게 사실이다. 가족 등 잉글랜드에서의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며 유럽 잔류가 우선이라고 했다. 고액의 몸값을 보더라도 한국행 가능성이 낮다. 베니테스는 에버턴에서 연봉 700만 파운드(약 109억원)를 받았는데, 벤투 감독이 받았던 18억원과는 차이가 크다. 협회는 애초 이달 말까지 새 감독 선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새 사령탑 찾기 작업이 더뎠다. 다음달 초쯤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대표팀은 다음달 24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콜롬비아와 A매치를 치른다. 벤투 후임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 '겨울스포츠 불모지의 기적'...나주 다시초 설상종목 금·은 8개



나주 다시초등학교는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럽 7명의 학생이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과 서울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남 초등부 대표로 참가해 금 6개, 은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나주 다시초등학교 제공)

겨울 스포츠 불모지인 전남 한 지역의 초등학교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8개의 메달을 수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 다시초등학교는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럽 7명의 학생이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과 서울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남 초등부 대표로 참가해 금 6개, 은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나주 다시초는 6학년 나경준의 활약이 돋보였다. 나경준은 클래식에서 9분08초06으로 1위, 프리 10분55초03로 2위, 복합 20분03초09로 1위, 계주 26분 08초09로 1위, 스프린트 1위를 차지해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를 가져왔다. 또 소지희(6학년)는 클래식에서 10분22초09로 1위, 복합 22분16초04로 2위, 계주 21분08초02로 1위를 차지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2관왕을 차지했다. 3학년 유호영은 나경준과 계주 종목에 출전해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시초가 획득한 금메달 6개는 전남이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17개의 35%이며 목표였던 종합 8위 달성에 기여했다. 나주 다시초의 동계체전 성적은 전문 운동부가 아닌 클럽에서 성과를 거두 전남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밝혔다.

## 104회 동계체전 크로스컨트리...나경준 4관왕·소지희 2관왕 배민주 코치 "학교스포츠클럽 방향 제시했다고 입모아 칭찬"

나경준은 "5학년때 크로스컨트리를 처음 접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금메달을 목에걸어 기쁘다"고 말했다. 배민주 코치는 "대회가 끝난 직후 설상 종목 감독들은 다시초의 성과에 대해 다관왕 배출이 아닌 전국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겨울 스포츠 불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 황의조 "조규성과 득점 경쟁 기대...두 자릿수 득점 목표" FC서울과 6월까지 단기 임대 계약

프로축구 FC서울과 단기 계약을 맺고 국내 무대로 돌아온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2022 카타르월드컵서 한술밥을 먹었던 조규성(25·전북)과의 득점 경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의조는 22일 서울 강동구 HJ컨벤션센터 강동점에서 열린 2023 K리그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캠프에 참석해 "동계 훈련 기간 선수들과 발을 맞추려 했다"며 "개막전부터 많은 팬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경기,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럽파로 뛰던 황의조는 이달 초 서울 유니폼 입고 6개월 단기 임대로 K리그에 복귀했다. 성남FC에서 뛰던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한 황의조는 "연습 경기를 소화하면서 몸 상태는 80~90% 정도 완성됐다. 앞으로 시즌을 치르면서 나머지를 채울 것"이라고 했다.

황의조는 안익수 서울 감독과 신인 시절 스승과 제자로 연이 있다. 2013년 성남 일화(현 성남)에서 데뷔할 때 사령탑이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섭다"고 웃으며 "선수를 편에서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하신다. 소통하려는 게 달라졌다.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가 빌드업인데, 그걸 잘 실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발전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 감독은 이날 황의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올 시즌 매 경기 득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표팀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나상호는 황의조에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했다. 황의조가 부상만 없다면 6월까지 서울에서 19경기를 뛸 수 있다. 이에 황의조는 "매 경기 한 골은 아니더라도, 많은 경기에서 득점하고 최대한 많이 승리하고 싶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에 도움이 되는 선수, 팬들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팀에 갈 때마다 두 자릿수 득점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에서도 똑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카타르월드컵에서 포지션 경쟁을 다뤘던 조규성과의 득점 경쟁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왕(17골)을 차지한 조규성은 월드컵에서 2골을 넣은 뒤 유럽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이적 시기를 울려퍼짐으로 미뤘다. 황의조는 "(조)규성이라는 상대팀으로 뛰는 적이 없어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준비를 잘하고, 팀으로 잘 준비해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K리그 맞대결이 기대되는 팀으로는 서울의 라이벌인 수원 삼성을 꼽았다. 그는 "수원과 대결이 기다려진다. 슈퍼패치는 성남에 있을 때도 기대되는 매치였다. 또 전북과 울산 현대 등 강팀과 경기에서도 꼭 승리해 팬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 흥국생명 이끄는 명장 아본단자, 오늘 데뷔전



마르첼로 아본단자 흥국생명 선임 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도드람 V리그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19일 아본단자 감독은 18일에 입국해 계약을 마무리했다. 비자 등 등록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취업비자 발급...등록 절차 마무리 흥국생명, 정규시즌 7경기 남겨봐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신인 사령탑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의 V-리그 데뷔전 날짜가 정해졌다. 아본단자 감독은 2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홈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아본단자 감독이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았다. 오늘 한국배구연맹(KOVO)에 등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3일 경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9일 아본단자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 당시 비자 발급 등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아본단자 감독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를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이제는 벤치에서 경기를 직접 지휘한다. 아본단자 감독이 정식 합류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온 대행 체제도 끝난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일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잡은 권순찬 감독을 해임했다. 이후 감독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감독대행을 맡았던 이영수 수석코치는 1경기만 지휘한 뒤 팀을 떠났다.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던 김기중 선임명고 감독은 감독 자리를 최종 고사했다. 이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팀은 김대경 감독대행이 이끌어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대행 체제로 치른 11경기에서 8승3패로 선전했다. 지난 15일엔 1위에 등극했다. 이제 아본단자 감독이 합류한 흥국생명은 선두 수상을 목표로 한다.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7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1996년 이탈리아 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아본단자 감독은 이탈리아 대표팀 코치, 불가리아, 캐나다,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아제르바이잔 라비타 바쿠, 터키 페네르바체, 이탈리아 자네타 베르가모 등 세계적인 수준의 팀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에서 프랑스 '신성' 랑달 콜로 무나이(프랑크푸르트)와의 맞대결에서 압승했다. 나폴리는 22일(한국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2022-2023시즌 UCL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나폴리는 다음 달 17일 홈에서 예정된 2차전에서 비겨도 8강에 오르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의 떠오르는 신예 골잡이 콜로 무나이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며 자신이 왜



나폴리 김민재가 프랑크푸르트 콜로 무나이를 막고 있다.

## '철벽' 세운 나폴리 괴물 김민재...무아니는 '퇴장' 눈물

세리에A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인지 증명했다. 김민재는 전반 37분 콜로 무나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고 한 장을 받았지만, 상대의 슈팅 기회를 완벽히 막아냈다. 앞서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모하메드 살라, 다윈 누녜스(이상 리버풀)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질풍에 빠트렸던 김민재의 실력은 UCL 토너먼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5차례 볼 경합에서 승리했고, 148차례 볼 터치와 함께 패스 성공률 94.7%를 자랑했다. 또 패스 5회, 가로채기 1회, 클리어 7회 등으로 수비 지역에서 활약 날랐다. 평점도 8.5점을 기록하며, 지오반니 디로렌조(8.6점)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